Malaysia

말레이시아사무소

한국 치킨에 흠뻑 빠진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를 강타한 한국 치킨 프랜차이즈

한국 치킨은 미디어그룹 말레이시아 타틀러(Malaysia Tatler)가 선정한 2017 말레이시아 푸드 트렌드에서 1위를 차지했을 만큼 말레이시아 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현재 말레이시아에 진출해 있는 한국 치킨 프랜차이즈는 2009년 첫 진출한 교촌치킨을 필두로 BBQ, 네네치킨, 치르치르치킨, 굽네치킨, 페리카나 등이다.

왜 한국 치킨이 인기가 많을까?

말레이시아에서 한국 치킨의 인기가 높은 데는 3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다민족 국가인 말레이시아에서는 닭고기의 수요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말레이계(62%), 중국계(22%), 인도계(7%) 등으로 인구가 구성된 말레이시아에서 이슬람교인 말레이계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힌두교인 인도계는 소고기를 먹지 않는다. 때문에 말레이시아 내에서 사육하는 가축 중 약 52%가 닭일 정도로 닭고기의 수요가 높다.

둘째, 한류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드라마 및 k-pop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한국 음식에 대한 선호도 또한 증가했으며, 드라마에서 한류스타가 치킨을 먹는 장면 자체가 광고로 작용하기도 했다.

셋째는 치킨 업계의 현지화 전략이 통했기 때문이다. 말레이시아에 진출한 한국 치킨 프랜차이즈들은 말레이시아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메뉴를 꾸준히 개발하고 현지 소비트렌드에 맞게 규격을 변경했다. 교촌치킨의 경우 음식을 주문할 때 보통 1인분부터 4인분까지 다양하게 주문하는 현지 식문화를 고려해 4조각부터 4인분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주문 옵션을 마련했다. 또한 다양한 인종을 고려해 샐러드, 차, 밥 등의 메뉴를 함께 판매하며, 소스 또한 다양하게 판매하고 있다.

| 말레이시아 네네치킨 매장 앞에서 구매를 위해 대기 중인 소비자들 |

출처 : 말레이시아 통계청, 서울경제, nenechicken.com, www.kyochon.com, www.bbq.co.kr, www.goobne.co.kr

가격 비싸도 맛과 분위기에 만족

말레이시아에서 한국 치킨 가격은 현지 물가를 고려하면 비싼 편이다. 한국의 치킨 한 마리와 비슷한 12조각의 가격은 34링깃(약 9,500원) 정도다. 말레이시아의 1인당 국민총소득 1만 1,100달러(약 1,322만 원)를 고려하면 싸지 않다. 인근의 일식이나 중식당의 단품 메뉴 가격도 20링깃(약 5,700원) 안팎이다. 현지인들은 비싼 가격에도 맛과 분위기를 고려한다면 충분히 가치 있는 식사라고 만족하고 있다.

| 국내 치킨 말레이시아 진출 현황 |

(단위: 개)

	진출 시기	현재 매장	연내 매장
BBQ	2009년	19	**20**
네네치킨	2018년 1월	4	**6**
교촌치킨	2018년 2월	7	**10**
굽네	-	1	**미정**

공격적으로 점포 확장하는 한국 치킨 프랜차이즈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많은 점포를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는 BBQ이며 이어 교촌치킨이 급속도로 매장을 확장하고 있고 네네치킨 등이 이를 뒤따르고 있다. 교촌치킨은 특히 2018년 기준 10개 매장에서, 2020년까지 매장 수를 100개 이상 늘릴 목표를 갖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추진 중이다.

한국 치킨 브랜드들이 말레이시아를 주목하는 이유는 식품업계 미래 먹거리로 떠오르는 '할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교두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에서 할랄 인증을 받는 것보다 말레이시아처럼 다른 이슬람 국가와 교차 인증이 가능한 국가에 직접 진출하는 것이 수월하다. 가장 좋은 방법은 현지에 생산 시설을 만들어 인증을 받는 것이다.

말레이시아에서 한국 치킨업체가 특히 경쟁자로 삼는 것은 일본 외식브랜드들이다. 일본 업체들은 1990년대에 진출해 한 번 실패하고 2000년대 다이소 등 일본의 대표 브랜드와 연합해 '일본 특구'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말레이시아 시장을 다시 공략하고 있다.

Key Point

현지 소비자 맞춤형 전략이 성공 요인

- 닭고기 소비가 많은 말레이시아에서 현지 소비트렌드를 확실히 파악하고 소비자의 입맛을 공략한 맞춤형 전략을 갖춘 한국 치킨 프랜차이즈들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현지 육류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이라면 무슬림 국가이기 때문에 할랄 인증을 우선 취득해야 하며, 현지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는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 말레이시아는 한국 드라마, k-pop 등을 매우 사랑하는 한류가 강한 나라로 현지 소비자 맞춤형 전략을 가진 업체라면 충분히 진출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